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7

체계적 선수 관리...체육인재 육성 앞장

전남도체육회

“과학적인 선수관리 시스템 구축과 체육인재 육성 강화기금 조성 등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진취적인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도체육회(이하 도체육회) 서정복 사무처장이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를 앞두고 올 운영계획을 밝혔다. 또 서 처장은 “전남체육회관 신축과 전남체육 역사관 조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체육회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선수관리 시스템 구축은 선수 개인별 체력 상태 등을 개인기록 카드로 전산화시켜 체계적

평소 등산·걷기운동으로 체력 다져

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남체육 위상 제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전국체전을 개최했던 도체육회는 성공개회 공로로 지난 16일 김상민 운영부장이 대통령 표창, 박경채 경기팀장과 정현숙 총무팀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부장의 대통령 표창은 도체육회 사상 첫 경사였다.

신년 초부터 상복이 터지면서 사기가 오른 도체육회는 이번 3·1절 마라톤을 통해 사원들의 조직력을 더욱 견고하게 굳혀간



다는 태세이다. 서 처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1만보씩을 걸으면서 왕성한 활동력을 과시하고 있다. 평소 등산으로 건강을 유지해 온 김남기 사무처장은 이번 대회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뒤지지는 체력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에 가득차 있다.

육상 국가대표 출신인 김상민 운영부장은 매일 2시간씩 목포 평화광장 일대를 달리며 현역시절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공감석 기획팀장도 운동이라면 빠지지않는 스포츠마니아로서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포츠를 직접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더 즐긴다는 정현숙 총무팀장은 평소 걷기운동으로 키운 체력을 이번 대회에서 유감없이 발휘하겠다는 각오이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마라톤 정신으로 업계 전국 1위 도전

한화손해보험 광주 상무지점 1팀

새시대! 새출발! 힘찬도전!

한화손해보험 광주 무등자연단 상무지점 1팀 직원들이 3·1 마라톤을 통해 더 큰 무대를 향한 도전에 나선다.

올해는 한화화재와 제일화재가 통합 한화손해보험으로 새로 출발하는 원년. 손해보험회사의 선두탈환을 노리는 이들은 전국 1위를 올릴 팀 목표로 내세웠다.

양석호 팀장을 중심으로 한 팀원들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 끝에 완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마라톤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묵묵히 달려겠다는 각오다. 3·1 마라톤은 그 도전을 향한 출발 무대다.

박호구씨, 25년만에 3·1절 마라톤 재도전

직원들의 팀워크가 중요한 2010년, 이들은 마라톤을 통해 팀 화합을 키우고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계획이다.

평소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체력단련을 해왔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자신감을 길러왔던 팀원들도 있는 만큼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초보 마라토너지만 열정만은 프로 못지 않은 유정일씨는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의 쾌감을 잊을 수 없다”며 “이번 대



회에서는 두 아들과 완주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를 폴코스 도전의 시범무대로 삼겠다고 다짐하는 팀원도 있다.

올해 전라남북도의 모든 대회 참가와 폴코스 완주를 목표로 세운 이석범씨는 3·1 마라톤을 시작으로 목표를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25년 만에 다시 3·1 마라톤 출발선에 서는 팀원도 있다. 박호구씨는 “1985년 3·1 마라톤이후 25년 만에 재도전을 내밀게 됐다”며 “이번 대회를 인생의 터닝포인트로 생각하고 힘찬 질주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부산 KT 대 울산 모비스 경기. KT 송영진(위)이 모비스 양동근에 앞서 공격리바운드 볼을 잡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캐피탈 ‘2위 굳히기’

프로배구 신협상무 3-0 꺾어

현대캐피탈은 21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계속된 NH 농협 2009-2010 프로배구 V리그 신협상무와 흥경기에서 블로킹의 절대 우위(13-2)를 앞세워 3-0(25-13 25-16 25-21)으로 이겼다.

5연승을 내달리며 선두 삼성화재(23승4패)에 이어 20승(7패)을 신고한 현대캐피탈은 3위 대한항공(19승8패)과 1게임 차를 유지하면서 2위를 지켰다.

매튜 앤더슨(23·미국) 대신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은 쿠바 출신 마흔살의 노장 공격수 오스발도 에르난데스는 이날 1.2세에 산발로 출장해 후위공격 3개 포함, 블로킹과 서브를 1개씩 성공하며 데뷔전에서 13점을 올렸다.

한편 대한항공은 경북 구미시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4위 LG손해보험과 방문경기에서 3-0(25-19 27-25 25-17)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한국 핸드볼 대표선수권 2연패

한국이 제14회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바레인을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20일 새벽(한국시각) 레바논 베이루트 앞사다가 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태영의 골 폭풍을 앞세워 바레인을 32-25로 여유 있게 물리쳤다. 이로써 한국은 2008년 이란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또 이번 대회 12개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7전 전승을 거두며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했다. /연합뉴스

KIA ‘안방 공개’ 이벤트

오늘부터 참관단 30명 모집

KIA 타이거즈가 ‘안방’을 공개한다. KIA는 홈구장인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탐방하는 투어 이벤트 참관단을 모집한다.

이번 이벤트는 내달 1일 실시되며 모집인원은 30명, 참가비는 2만원이다. 참관단은 22일 구단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모집하며 참가비 입금순으로 마감된다.

투어에 참가하는 팬들에게는 구단 처음으로 선수단 락커룸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선수단 버스, 트레이닝장, 실내연습장 등 선수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관람도 이뤄진다.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참관단에게 점심과 모자, 사인볼 등 기념품이 제공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 불이야!

21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부산 KT 대 울산 모비스 경기. KT 송영진(위)이 모비스 양동근에 앞서 공격리바운드 볼을 잡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강진베이스볼파크, 넥센히어로즈 2군 홈구장으로

2군리그 연 50경기·5년간 사용계약

강진베이스볼파크가 앞으로 5년간 프로 야구 2군 넥센히어로즈의 홈구장으로 사용된다.

강진베이스볼파크는 ‘넥센히어로즈’ 서울 사무실에서 이같은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넥센히어로즈는 2010시즌부터 강진베이스볼파크 2군 홈구장 사용을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하여 승인도 얻었다.

이에 따라 넥센히어로즈는 오는 4월부터 프로야구 2군 남부리그(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한화 이글스, KIA 타이거즈) 50경기 이상을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갖

게 된다.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야구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2군 리그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 것이 이번 계약을 이끌어 내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베이스볼파크 우수장 대표는 “야구장을 관광단지화 시켜 가족과 함께 편히 쉬어가는 휴식의 장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베이스볼파크는 모두 한 장소에 마련된 경구 구장 4개면(중앙120m, 좌우96m)과 길이 70m, 너비 40m인 동형 실내연습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Advertisement for '천기누설' (The Secret Revealed) by An Jung-sun, featuring a '부활' (Resurrection) exhibition at Dongguk University.

Advertisement for HALLA Weltech Corp.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Halla Eco-friendly Electric Transport Vehicle), highlighting features like 3-year warranty and 3% interest.

Large advertisement for '해령법률경매' (Haerye Law Auction) listing various real estate and business assets for sale across different regions.